

25. 선인(仙人)이 나들던 방선문(訪仙門)⁴⁸⁾

- ◎ 뜻밖의 발견(發見) ‘환선대(喚仙臺)’ 그 환희(歡喜) 못
잊어
- ◎ 봄철엔 목사(牧使)가 야연(野宴) 베풀던 곳

“언덕 위에 말을 세워두고 벼랑을 따라 수십 보를 내려갔다. 이끼 푸른 암벽이 양쪽으로 우뚝 서 있고 그 가운데 큰 바윗돌이 마치 문 모양으로 가로질러 있다. 그 너비가 족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고 높이는 가히 두 길(20척)이나 돼 보였다. 그 곁에 바위에는 ‘방선문(訪仙門)’, ‘등영구(登瀛邱)’라는 여섯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또 선인(先人)들이 새겨 놓은 제품(題品)도 보였다. 이곳이 바로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였다. 문 안팎과 위 아래로 맑은 모래 흰돌이 마치 갈아 문지른 것처럼 윤이나 눈부셨다. 시냇물이 고인 좌우로는 철쭉이 즐비하여 바야흐로 꽃망울을 피우고 있어 그 아름다움이 비길 데 없었다. 나는 이 절경에

48) 『한라일보』 제148호 (1989. 10. 14).



↓ 돌이끼에 문혔던 '환선대(喚仙臺)' . 뜻밖
에 발견하게 된 마애각(磨崖刻) ↓ 이 각명은
정조(正祖) 때의 목사(牧使) 김영수(金永綬)가
새겨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취하여 한참을 깨지 못하다가 겨우 일어났다.”

최익현(崔益鉉)이 도취되어

이상은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방선문을 찾았을 때의 글이다. 일찍이 대원군(大院君)을 성토하고 제주도에 귀양 왔던 그는 귀양에서 풀리자 1875년(고종 12) 봄에 한라산에 오르는데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이 방선문이었다. 그는 이때의 글을 「유한라산기(遊漢擎山記)」에 남기고 있다.

또 조선시대 말에 편찬된 『탐라지(耽羅誌)』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방선문은 제주에서 남쪽으로 15리에 있다. 한라산 북쪽 기슭의 물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 흐른다. 바위 절벽은 천 척이나 되고 그 가운데 큰 돌이 무지개 모양으로 걸쳐 있어서 무지개문[홍문(虹門)]이라고 한다. 그 문 아래는 넓은 바위가 있어 사오십 명이 앉아 놀 수가 있다. 양쪽 언덕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우거져 꽃이 필 때는 위아래가 온통 꽃으로 덮인다. 이때가 되면 시인 묵객이 모여 봄을 구가하게 되는데 표



방선문 환선대 (탁본)



방선문 환선대

연히 속세를 떠나仙境(仙境)에 이른 감상에 젖는다. 이 무지개문을 방선문이라고 하며 그 넓은 바위를 우선대(遇仙臺)라고 하여 각각 그곳에 새겨 놓고 있다.”

이 두 기록을 보면 방선문에 대하여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방선문은 제주 성내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철쭉이 필 무렵이면 목사가 막료와 기생을 거느리고 나와 연회를 베풀었다. 선비, 한량들도 모여 시회(詩會)나 주연을 열기도 하였다.

마애각(磨崖刻)의 명소(名所) 되어

그동안 이곳을 찾은 목사나 유배인, 문인, 학자들이 얼마나 될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들 가운데는 바위에 시나 이름을 새겨 기적을 남겨



! 방선문 각자 | 신선이 방문하는 문의 뜻.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제92호로 지정되었다.

놓은 사람도 적잖다. 지금 도내의 명소 가운데 옛 선비들의 가장 많은 마애각(磨崖刻)을 남기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조사한 가운데도 상당수에 이르는 저명한 인물들의 마애각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목사(牧使)만도 홍중징(洪重徵), 안경운(安慶運), 김윤(金潤), 김몽규(金夢燾), 홍태두(洪泰斗), 박성협(朴聖浹), 김영수(金永綬), 이명준(李命俊), 한정운(韓鼎運), 이현택(李顯宅), 이원달(李源達), 이원조(李源祚), 목인배(睦仁培), 강면규(姜冕奎), 조희순(趙義純), 박선양(朴善陽), 심현택(沈賢澤), 홍규(洪圭), 심원택(沈遠澤), 송구호(宋龜浩), 이재호(李在護), 홍종우(洪鍾宇) 등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 관관(判官) 이하의 관리, 적객(謫客), 도 내의 인사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여러 차례 이곳을 찾았고 그때마다 마애각에 눈을 돌려 찾곤 했다. 미처 몰랐던 각명(刻銘)을 찾을 때마다 느끼는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가운데서도 ‘환선대(喚仙臺)’의 각명을 찾았을 때의 환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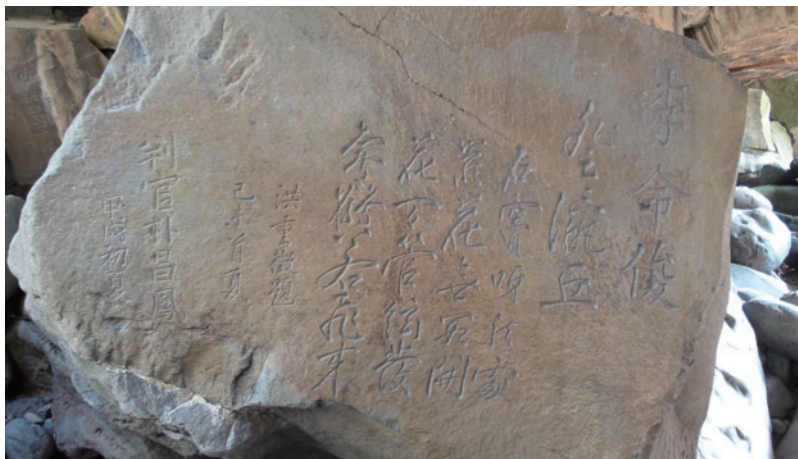


|방선문 전경| 영주십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 제주를 찾은 목사, 문인, 학자 등은 봄철에 이곳을 찾아 자연과 벗하며 시를 읊기도 함. 마애각의 명소이다.

목사(牧使)들의 시명(詩銘)도

방선문·등영구나 우선대, 석문(石門) 등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졌거나 그대로 육안으로 볼 수 있어 찾은 것이었지만 환선대만은 전연 뜻밖이었다. 홍문(虹門) 뒤편 왼쪽 구석으로는 각자가 없어 그동안 몇 차례 지나친 곳이었다. 그날도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글자를 새길만한 여지는 있는데…” 생각했다. 버릇처럼 나뭇가지를 집어 들고 돌이끼를 휘적거려 보았다. 아주 마모가 심하게 느껴졌지만 분명히 사람의 손이 간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나뭇가지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나는 다음날 시간을 내고 솔



방선문 등영구 | 1739년 제주목사 홍중징이 방문하여 초서로 오언절구의 한시를 새겨 두었다.

과 형짚뭉치 등을 들고 달려갔다. 이끼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윤곽은 초서체의 ‘환선대(喚仙臺)’였다. 이곳이 환선대라고 들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로 여러 기록들을 뒤져 보았지만 환선대는 없었다. 이 방면의 대가들을 찾아 문의해 보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랫동안 묻혀 버렸던 선인의 자취를 처음으로 발견해낸 순간이었다. 이것은 정조(正祖) 때(1778~1781)의 목사 김영수가 새겨 놓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는 이 감격과 비밀을 혼자서 지니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채 1년만인 금년 봄 마애명탁본특별전(磨崖銘拓本特別展)에 전시된 것을 보면서 쓴 웃음을 가누지 않을 수 없었다.

“석굴은 입을 크게 벌려 있는데/ 바위엔 무수한 꽃이 피었네.
꽃 사이로 거문고 소리가 울리면/ 마치 학이 날아 올 것 같구나.”

(石竇呀然處/巖花無數開/花間管絃發/鸞⁴⁹⁾鶴若飛來)

영조 때의 목사 홍중징(洪重徵)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영수·한정운·이원달·조희순 등 목사들을 비롯하여
방선문을 노래한 시는 너무나 많다.

옛 비경(秘境)은 사라지고

비단 옛 선비들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이곳을 찾았을 때
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고요하여 압박감을 느끼곤 했다. 시인
이 아니라도 이곳을 찾으면 누구나 시경에 잠길 수가 있으며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남모를 비경(秘境)에 잠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봄에 찾아와도 그 많던 철쭉과 진달래를 보기
가 힘들고 그 맑던 물도 볼 수가 없다. 바로 북쪽으로는 교도소가 들어
서고 둘레는 오라(吾羅)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에서는 바로 이
남쪽 먹상에 다리까지 걸쳐 놓았다.

이제 이곳에도 그 옛날은 없고 선인들이 남겨 놓은 수많은 마애각만
이 옛날을 말해주고 있다.

49) 신문에는 ‘생(笙)’으로 되어 있다. ‘난(鸞)’으로 바로 잡음. 제주동양문화연구
소, 『제주도마애명』 1999, 52~53쪽 참조.